



용진군 지도항 ‘해수부’가 2025년 ‘어촌신활력 사업’에 선정

증진사업 최종 대상지, 총사업비 50억 원 투입 군 지도항, 지속 가능한 어촌 경제 모델로 변모

인천광역시시는 26일 오후 해양수산부 주관 ‘2025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공모에서 용진군 지도항이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은 2023년부터 5년간 전국 300개소에 총 3조 원을 투자해 경제, 생활, 안전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지역특화를 통해 어촌을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천시는 2023년 강화군 장곶항, 용진군 백아리2항, 2024년 강화군 주문항 등 3개소에 총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해 수산물 가공·판매시설, 물양장 확장, 선착장 연

장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2025년 사업 공모에는 전국 11개 시도에서 98개소가 신청해 25개소가 선정됐으며, 인천시는 용진군 지도항이 최종 선정되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 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용진군 지도항은 인천시 유인도 내 가장 작은 규모의 섬으로, 천혜의 자연경관과 풍부한 어족자원을 갖추고 있지만 어업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어촌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또한, 겨울철 북서풍과 방파제 구조적 문제, 월파로 인한 어선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선착장

이 협소하고 급경사로 인해 낙상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성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방파제 및 선착장 증축과 연장이 추진되어 잦은 파도와 강풍으로 인한 어선 피해를 방지하고 어항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된다.

인천시는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협력을 강화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2026년 공모를 대비해 이번 공모에 탈락한 대상지에 대한



2025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선정지 조감도

보완과 신규 대상지 발굴을 위해 관계 공무원과 지역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동우 시 해양항공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도항을 지속 가

능한 어촌 경제 모델로 발전시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의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미순 기자



인천의 출범 역사, ‘30주년 사진전’ 통해 성장 한눈

경기도 인천시부터 출발해 세계적 광역도시로 변천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은 3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 인천광역시 출범 30주년을 기념하는 ‘나는 오늘, 어제의 인천과 만나다’ 사진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1949년 ‘경기도 인천시’로 출발한 인천이 인구 100만이 넘어 ‘인천직할시’가 됐다가 오늘날 세계 10대 도시를 목표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광역시로 도약하는 과정이다.

한편, 생생한 사진 자료 전시회가 열리는 첫날인 3월 1일은 지난 1995년 용진군, 강화군, 검단면이 편입돼 인천이 면적과 기능 면에서 대한민국에서 손꼽는 ‘광역시’로 거듭난 날이다.

전시는 인천 언론사 사진기자로서 인천의 성장 과정을 평생 현장에서 지켜봐 온 박근원 씨와 시정 홍보지 ‘굿모닝 인천’을 오랫동안 기고해 온 포토저널리

스트 김성환 씨의 사진 중심과 인천시사 편찬위원회, 인천시청 기록관, 화도진도서관 등에서 소장해 온 미공개 희귀사진들로 구성됐다.

전시는 시대별로 분류해 3부로 진행된다. 1부‘경기도 인천시의 탄생’에서는 한국수출산업공단 개발, 내항 도크 확장, 경인고속도로 건설 등 국가 주도의 개발 사업으로 인천이 새롭게 도약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2부‘인천직할시 승격’에서는 구월동 신청사 이전, 광역교통망 구축, 권역별 도시개발계획 등 도시 발전에 박차를 가하던 모습을 전시한다.

3부 지금은 인천광역시 시대’에서는 민선시장 선출, 경제자유구역 설치, 송도와 청라를 비롯한 신도시 건설, 인천국제공항 설립 등 다방면에서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나아가는 인천의 모습을 소개한다. /문미순 기자

1966년 염전과 농경지를 매립해 만든 인천수출산업공단 기공식, 1964년 인천에서 처음 열린 전국체육대회, 수도권 최고 인기 휴양지로 각광받던 1960년대 송도유원지, 송도역을 달리는 수인선 꼬마열차 모습 등이 아련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전시는 3월 1일부터 16일까지 16일간 시립박물관 우현마당에서 진행되며, 3월 19일부터 4월 6일까지는 19일간 인천시청 애플광장으로 장소를 옮겨 개최된다.

김태익 시 시립박물관장은 “바쁜 일상 속에서 지나쳤던 인천의 놀라운 변화상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전시가 될 것”이라며 “인천이 걸어온 자취를 앞으로써 시민들이 우리 도시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미순 기자



인천시설공단, ‘해피박스 드림’

인천시설공단이 ‘해피박스 드림(Dream)’ 선물 꾸러미를 임직원에게 전달해 출산과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에 앞둔 임직원들을 함께 축하한 조직 문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피박스 드림’은 가족 친화적인 직장 환경 조성 및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공단이 새롭게 도입한 복지혜택이다.

꾸러미에는 각각 출산과 초등학교 입학에 따라 필요한 신생아

용품과 학용품 등이 들어있는데 받아 보는 임직원들은 이구동성 기쁨 두 배로 직장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다.

공단 관계자는 “해피박스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처럼 직원들의 생애주기에서 생기는 큰 행복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가족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직원이 행복한 공단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문미순 기자

인천시, ‘민생규제 집중 신고’ 3월 한 달 운영

인천광역시는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3월 한 달간 ‘민생규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경기 불황과 정세 불안 등으로 기업 경영과 시민 생활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민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민생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를 통해 인천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할 계획인데, 발굴 대상은 일상 불편, 경제, 사회복지, 보건, 주

거, 교육, 일자리 등이다. 특히, 민생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신고를 원하는 시민은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속해 건의하거나 인천시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답변될 예정이며, 행정기관의 검토가 완료되면 신고 시 등록한 번호로 안내된다. 또 누리집 등을 통해 답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문미순 기자